

남가주-뉴욕 교협 지역 넘어 연합해 감동

남가주교협 샌디 구호에 1만불 성금 쾌척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중훈 목사)가 지난 11월 한 달간 진행한 허리케인 샌디 구호금 모금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가 1차로 1만불을 쾌척했다.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어려움에 LA 지역 한인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성금을 전달한 것이다. 남가주교협은 현재 2차 모금을 진행 중에 있다.

남가주교협은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이 샌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직후, 어려움을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당시 남가주교협 신임회장에 선출됐던 진유철 목사는 양승호 당시 뉴욕교협 회장에게 남가주교협 차원에서 모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유철 목사와 양승호 목사는 같은 교단 소속 선후배 관계였기에 남가주교협과 뉴욕교협이 뜻을 모으는 데에 큰 디딤돌이 됐다.

남가주교협은 11월 한 달 동안 회원교회들에 뉴욕지역 한인교회들의 피해상황을 알리며 모금운동을 추진해 왔고, 1만불이 모금돼 1차로 전달한 것이다. 먼 타주의 한인교회들을

돕기 위해 1만불을 신속히 모금해 전달한 선례는 타 지역 이민교회와의 협력에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또한 미주 이민교회들의 훈훈한 정을 나타내 주고 있다.

남가주교협은 이번 샌디 피해 구호금 전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뉴욕교협과 협력하면서 지역 이민교회의 어려움을 서로 돕고 복음을 위해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뉴욕교협도 LA 지역 교회들이 힘든 일을 당할 때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 기구는 현재 MOU 체결을 타진 중에 있으며, 뉴욕교협은 12월에 있을 임신행위위원회에서 남가주교협과의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 밖에 남가주교협은 김중훈 목사가 취임 당시 밝혔던 미서부지역 창조과학 탐사기행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를 돕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호금을 비롯한 대외 선교활동에서 양 기구의 협력은, 앞으로 타주교협 간의 교류와 연합활동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전망이다.

김대원 기자



지난 8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 메시아 콘서트. 글로리아찬양단이 주최한 이 공연은 근래 보기 드문 명품 공연으로 주류사회의 스타급 음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인종과 민족을 넘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리가 됐다.

중부교협 29차 정기총회, 임원 전원 연임 결정

중부교회협의회(회장 곽소건 목사)가 제29차 정기총회를 10일 오전 반석교회(박상열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 임원들은 '회장 및 임원단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아울러 회장 및 임원단도 지난 회기에 이어 연임하기로 결의했다. 제29대 중부교협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곽소건 목사 >부회장 박상열 목사, 송에스터 목사 >총무 전동은 목사 >서기 차권희 목사 >회계 김순옥 목사. 토마스맹 기자



중부교회협의회를 이끌게 된 임원들. 앞줄 좌측으로부터 네번째가 곽소건 회장. 중부교협은 지난 회기 임원들이 모두 연임하게 됐다.

홈리스 향한 온정 올해도 어김 없었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올해도 어김없이 홈리스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미드나잇미션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사랑의 축제가 8일 열렸다. 이 행사는 파바월드와 예수사랑세계선교회(조병국 목사)가 주최해 300여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자리했다.

이날 흥겨운 공연과 함께 예수사랑세계선교회가 후원한 받아 준비한 양말 1000켤레, 모자 500개, 자켓 500개, 티셔츠 242개 등이 연말선물로 배부됐다. 점심은 파바월드에서 준비했으

며, 예수사랑세계선교회에서 100명의 봉사자들이 동원돼 행사를 섬겼다.

또 전통침구학회 LA지부에서 10명의 한의사들이 참여해 침술치료, 무료 양한방 건강검진을 제공하기도 했다.

봉사자로 참여한 한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한 기쁜 하루였다"고 전했다. 예수사랑세계선교회 조병국 목사는 "선교단체들이 연합해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많은 교인들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사우스베이목사회 신임회장에 구진모 목사 선출

사우스베이목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으로 구진모 목사를 선출했다. 10일 시온연합감리교회에 열린 총회에서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구진모 목사를 2013년 회장으로 추대했다. 구 목사는 취임 소감에서 "작은 교회를 돕고 연합하는 사람들을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여름성경학교나 청소년 연합 집회 등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행사들을 목사회가 나서서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에는 사우스베이 지역 80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정하나 기자



사우스베이목사회가 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구진모 목사(뒷줄 좌측에서 세번째)를 선출했다.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 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213-248-0221
 Tel. 562-943-1456

2012 **ENDTIME REVIVAL CONFERENCE** 세. 대. 를. 깨. 우. 는

수 많은 엔타임 메시지와 티칭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즌 가운데 UBM교회와 작은자 교회는 2012년 12월 한달 간 강력한 주님의 메신저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려합니다.

개어나야 합니다!

UBM교회와 작은자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

2012 엔타임 컨퍼런스 *장소와 시간을 잘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김 목사
 전 시카고중앙교회 교육전도사
 전 시카고침례교회 영어부전도사
 전 후쿠오카 코너스톤교회 전임교역자
 전 오병이어캠프 대표
 현 The Voice Ministries 대표
 현 Jesus Generation Movement 대표

특별초청주일에배
12월 23일 (주일)
 *장소 | 작은자교회 *시간 | 11:00AM
 작은자교회 | 1681 W Broadway, Anaheim, CA92802

박주현 목사
 전 Hillsong College
 전 뉴프린교회
 전 안디옥장로교회
 전 형제사랑교회 개척, 초대담임
 현 HisStory Church 담임
 현 호주 Crosslink 소속 목사

특별초청집회
12월 17-19일 (월화수)
 *장소 | UBM교회 *시간 | 매일 7:30PM
 UBM교회 |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90604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문의 | 562-903-2600, 626-200-5558
 www.ubmchurch.com

“누구에게나 한 방은 있다”

충현선교교회 권투 세계 챔피언 홍수환 장로 간증집회

충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에서 홍수환 장로 간증집회가 8일부터 9일까지 열렸다. 9일 주일 오후 3시 새신자들을 초청해 열린 집회에서 홍수환 장로는 자신이 권투를 시작하면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기까지,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인생과 예수를 영접하게 된 계기를 시종 재치 있게 전했다.

홍 장로는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됐지만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오히려”라며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더 큰 영광이 찾아오기 때문에 인생에서 결코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일은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은 결코 없다”고 했다.



세계 챔피언 홍수환 장로가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에 관해 간증하고 있다.

홍 장로는 카라스키아와의 WBA 플랫을 당시를 생생하게 전해 이날 주니어페더급 챔피언 결정전, 아놀드 테일러와의 밴텀급 타이틀전을 펼쳤을 당시를 생생하게 전해 이날 참석한 옛 권투 팬들의 추억을 되살리기도 했다. 토마스 맹 기자

노래와 몸짓마다 맘과 정성

뮤지컬 “A Reason to Rejoice”

베데스다대 뮤지컬과 성탄 맞이 공연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는 기독교 뮤지컬로 복음만 전할 겁니다.”

아직은 프로가 아니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만큼은 뜨겁다. 노래 하나, 몸짓 하나에 맘과 정성을 쏟는다. 바로 베데스다대학교 음악대학 뮤지컬과 학생들과 지도교수 송규식 목사의 이야기.

남가주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 불릴 정도로 교계 마당발인 송 목사는 은혜한인교회 교역자 시절부터 노래와 춤, 연기를 접목시킨 뮤지컬을 통한 복음 전파를 주제로 10년간 연구를 거듭해 왔다.

송 목사와 함께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부지런히 연습해 온 학생들은 지난 7일 뮤지컬 작품 ‘A Reason to Rejoice’ 공연을 가졌다. 이 대학 콘서트홀 2층에서다. 무대에 선 이들 대부분이 한인 학생이지만, 타인종 학생도 눈에 띈다.

이들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뮤지컬 ‘A Reason to Rejoice’는 알렌 포트의 원작 뮤지컬을 새롭게 각색한 것으로 힙합과 랩 장르를 가미해 극적 묘사를 시도한 현대적인 감각의 작품이다. 분량은 40분.



지도교수 송규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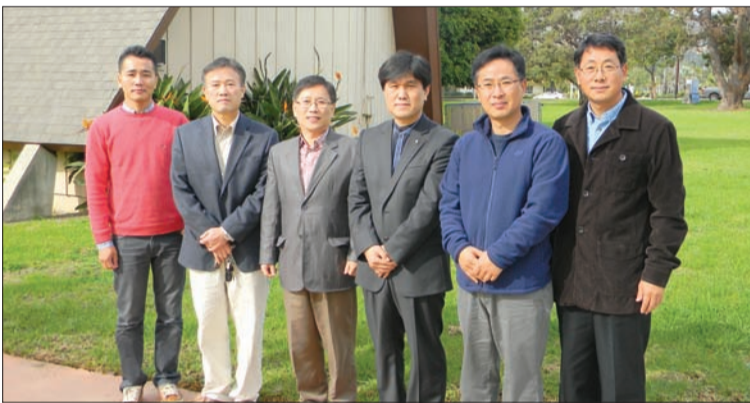
송 목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온 세상이 기뻐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정 기뻐해야 할 참된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이 대감의 스토리”라면서 “이번 공연을 필두로 앞으로 남가주 일원 교회들을 중심으로 소규모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714-699-0210

정하나 기자

벤추라교역자협, 회장에 이상영 목사 선출

지난 4일 벤추라감리교회(최상훈 목사)에서 벤추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가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카마리 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를 선출했다. 총무는 박민규 목사(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 앞서 최상훈 목사가 “대표기도 이렇게 하라”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최 목사는 교회에서 이뤄지는 대표기도 훈련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스반드시 원고를 준비하게 할 것 △적절한 단어를 선택할 것 △시간은 3분을 넘지 않을 것 △절기와 때에 맞게 할 것 등이 주요 초점이다. 그는 “예배에서 대표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훈련시키면 더욱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며 “준비한 내용이 회원 목사님들 교회에도 적용할 만한 것들이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벤추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를 대표하는 임원들, 사진 가장 우측이 이상영 신임회장.

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벤추라 지역 교역자들은 이 강의에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대표기도를 할 때 000 목사님, 담임목사님, 담임목사의 성을 붙여 김 목사님, 이 목사님, 주의

중, 사자 목사님 등 너무나 통일되지 못한 단어가 예배의 분위기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역자들은 대체로 목사의 성과 함께 이름을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협의회 회원으로는 다우전옥스 한인장로교회(이종수 목사), 새생명 장로교회(이태호 목사), 웨스트레이크 한인교회(오정택 목사), 리빙스톤교회(정준호 목사), 시미밸리한인교회(반채근 목사), 시미밸리은혜인터내셔널교회(장승중 목사), 열린하늘교회(이윤호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목사), 벤추라카운티장로교회(조인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박민규 목사), 옥스나드한인교회(김진국 목사), 벤추라감리교회(최상훈 목사), 열린문장로교회(김경옥 목사)가 있다. 토마스 맹 기자

방주교회 자원봉사 어워드 수상

방주교회(김영규 목사)가 지난 2년간 한인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을 펼쳐 온 공로를 인정받아 또 한 차례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이번엔 미주 중앙일보 주최로 선구자 라이온스 클럽과 미주한인봉사단(KAVC)이 공동 주관 하에 지난 8일 열린 ‘자원봉사 어워드 2012’에서다. 이 교회는 지난해 한미동포재단이 수여하는 ‘훌륭한 효행상’에 이어 지난 11월에는 LA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수여하는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자원봉사 어워드 2012’ 행사는 자원봉사를 한인사회 문화로 정착시키고 타인종과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빅헬프스·유스 서비스상·인스피레이션·브리지상·레인보우상 등 5개 부문에 1팀씩 총 5개팀을 선정해 각 부문별 상금 1000달러씩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방주교회는 자원봉

사 부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봉사 활동을 펼친 단체에 주어지는 인스피레이션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한인 자폐아들을 대상으로 3년간 봉사 활동을 펼쳐온 체스티티 도슨 씨가 빅헬프스상, 경찰 학교 명예교관인 캐린 김 씨가 유스 서비스상을,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재미한인직업교육센터가 유스서비스상을, 백내장 수술 및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비전케어서비스(미주 서부)가 레인보우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방주교회는 오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독거노인 2백여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나눔’ 행사를 펼친다. 장소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우리마켓 리틀도요 매장이다. 대상은 한인 어르신 1백명, 일본인 어르신 1백여명이다.

정하나 기자



벤추라카운티교역자협의회 주최로 지난 9일 성탄연합예배가 거행됐다. 사진은 벤추라 감리교회의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해피 크리스마스” 공연.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대한 신학대학교 스포츠학과에서는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태권도 골프 체조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학사과정 모집
- 전공과목: 골프, 체조, 태권도
-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문의전화: 골프 310-598-0746
- 체조, 태권도 323-608-1010

- 전문인 선교에 관심 있는 분
- 골프를 배우고 싶은 어린이(7~11세)환영 (픽업가능)

문의전화 :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주소 : 3128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 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를 유명한 한동규 박사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가 고름으로 녹아나오지 않으면 암 치료 약이 아님. -한동규-

미국 연락처: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미주 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봄학기 {입학생} 모집

편입생

총장 김근수 박사 Keun Soo Kim ■ 약력 미국 남가주 신학대학(Southern California Bible College & Seminary, B. A.) / 한국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Chong Shin Theological Seminary in Seoul, Th. M.) / 미국 칼빈 신학대학원 신학석사(Calvin Theological Seminary in Grand Rapids, Th. M.) / 영국웨일즈 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Univ. of Wales Graduate School in U.K, Ph. D.) 미국 예일대학교 교환교수 (Yale Univ, Divinity School, Research Fellow) / 한국 아프리카내지선교회(AIM) 대표이사 ■ 경력 한가람 교회담임 현 한울교회 담임,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설교대학원 장 대학원장 부총장 역임, 현 개혁신학회 회장

이사장 김연도 박사

2013년 봄학기 개강일시 : 2013년 1월 28일 (월) 오후 7시

대학 학과 및 학위과정

- 전문학사 과정 - 여교역학과(2년제) : 교회 사역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성 사명자(Diploma 과정)
- 학사과정 - 신학과, 선교학과, 음악과, 기독교 교육과(4년제) : 고등학교 졸업자

신학대학원 / 일반대학원 학과 및 학위과정

- 목회신학 석사(M.Div.) - 3년 6학기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교 소지자로 세계교인
- 일반대학원 - 2년 4학기 : 신학전공, 선교학 전공: M.Div, 소지자 M.A.(선교학 전공, 기독교 교육전공) M.C.M.(교회 음악 전공)
- 박사과정 - 2년 4학기 : D. Min.(목회경력 3년 이상) M.Div, 소지자 Th.D.(Th.M., 소지자) D.C.Music(M.A 소지자)

미주총신대학교 동문(가족)골프대회

주최: 미주총신대학교 / 미주총신대학교 동문회
일시: 2013년 2월 11일(월) 정오 및 회비: 추후통보
*참가할 분들은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교회 주일예배: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예배안내 장소: 총신대학 채플실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 School of Theology
- School of Mission
-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 School of Church Music

미주총신대학교

총장 김근수 박사 (Th.M. Ph.D.)
2975 Wilshire Bl. #300, L.A., CA 90010
TEL: 213.487.1010 FAX:213.487.3303
I-TEL: 070-7019-1011
www.chongshinusa.edu e-mail : info@chongshinusa.edu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 개척 3년 6개월만에 자체 성전 입당

777 비전 일환... 4번째 지교회

다이아몬드바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일권 목사)가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 성전입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부에나팍에 있는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의 지교회로, 2009년 4월에 개척을 시작했다. 그간 미국교회인 '다이아몬드 캐년 크리스천 처치' 예배당 등 외부 건물을 빌려쓰다 이번에 자체 성전을 갖게 된 것.

모교회 감사한인교회는 '777 축복운동'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사회에 7개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70개 지역에 선교지 교회를 세우며 700명의 선교사를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운동을 점진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감사한인교회는 2007년 2월 코로나에 첫 지교회(담임 백성찬 목사)를 개척한 이래 5월 빅토빌에 두 번째 지교회(담임 박상훈 목사)



부에나팍 감사한인교회가 설립한 지교회인 다이아몬드바 감사한인교회가 성전에 입당했다.

를 세웠고, 10월에는 영어권 회중을 위한 그레이트허비스트교회(담임 피트 조 목사)도 개척한 바 있다.

한편,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 예배시간은 매주일 오전 10시 30분, 금요일 오후 7시 30분이며 교

육부도 동일한 시간에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소: 451 W. Lambert Rd. #204 & 205 Brea, CA92821

문의: 909-279-1919

웹사이트: www.dtkc.org

정하나 기자

김삼환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남가주동신교회 새성전 입당 기념부흥성회

남가주동신교회가 새성전 이전 감사예배 및 부흥성회를 지난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김삼환 목사(서울 명성교회)를 감사로 초



김삼환 목사



손병렬 목사

빙한 가운데 개최했다.

첫날 집회는 손병렬 담임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정하석 장로(새성전 위원회위원장)의 기도 이어 김삼환 목사가 '교회의 은혜와 축복'(엡 5:28-30)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남가주동신교회가 새성전 이전을 계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더욱 불드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반석의 기쁨, 반석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이튿날 집회에서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핍박을 무릅 쓰면서 교회에 다녔다"면

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초를 낙으로 삼고 살던 아버지가 하루 아침에 모든 걸 잃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됐다"고 간증하기도 했다. 한편, 김 목사는 이번 집회에서 동성애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시도가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라면서 "기독교 정신에 반하는 동성결혼에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남가주동신교회는 지난 11월 초 본당 수용 인원 1천명 규모의 대형교회를 매입해 이전했으며 이후 특별새벽기도회, 간증집회, 음악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지역사회와 교계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문의)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92831/ 714-680-9556

정하나 기자

삼성장로교회, 창립 28주년 맞아 임직식 거행

공로장로 추대 및 장로 · 권사 · 안수집사 임직



신원규 담임목사(가장 우측)가 임직자에게 임직패를 전달하고 있다.

라하브라에 위치한 삼성장로교회(담임 신원규 목사)가 창립 28주년을 맞아 9일 임직식을 열고 장로 김봉식·전병일·황도성, 안수집사 송기성·안은식·이성욱·임지호·최정근·허금주, 권사 국승희·김광숙·김명숙·김성준·김영희·김지완·이옥자·유병주·임미숙·정순덕·진상화·최인숙·홍영선·황경숙·홍린다 씨를 새로

운 일꾼으로 세웠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수성·김이집·배인수·선계원 씨가 각각 공로장로에 추대됐다.

이날 임직예배에서 신원규 목사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간증(눅9:23)'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변영의 목사(벨엘장로교회)와 추영욱 목사(안디옥장로교회)가 권면을, 박성민 목사(APU 부총장), 지용덕 목사(미주

양곡교회), 심태섭 목사(센트럴신학교 학장), 조프 파프 목사(라하브라힐스 장로교회)가 각각 축사했다.

신 목사는 1982년 5월 총신대학원 재학 중 도미해 캘리포니아 배티스트유니버시티를 거쳐 아주사퍼시픽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아주사퍼시픽대학 실천신학 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외형적 교회 성장의 헛된 욕망을 겸손하게 내려놓는다"면서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200명 이상 성도들이 모이면 즉시 분립시키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선언해 이슈가 된 바 있다.

주소: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문의: (562)690-9800

웹사이트: www.samsungchurch.org

정하나 기자

부모님선교회 미드시티 지부 창립

노부모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해 온 부모님선교회(대표 주도진 목사)가 창립 17주년을 맞아 미드시티(Midcity) 지부를 창립했다.

부모님선교회는 1995년 창립 이래 노년기에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노쇠하고 병약한 몸으로 외롭게 소망 없이 지내는 노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특수선교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해마다 1월 1일 로스힐 공원묘지에서 합동 추모예배를 비롯, 매월 정례예배와 건강강의, 양로원 방문 예배, 위로공연, 연합 부흥성회, 각종 절기 연합 예배 등의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부모님선교회는 지난 9일 남가주성서교회에서 지부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는 민경엽 OC교회 회장, 안병준 목사, 박성환 목사 등 여러 교계 인사가 참석했다.

현재 오렌지카운티 부모님선교회(회장 주도진 목사)를 비롯해 LA 부모님선교회(회장 안덕원 목사), 사우스스페이 부모님선교회(회장 박용기 목



지난 9일 남가주성서교회에서 지부 창립 예배가 있었다.

사), 인랜드 부모님선교회(회장 유니스 김 목사), 오클라호마 부모님선교회(회장 장은석 목사), 동부 부모님선교회(회장 장은석 목사), 메드시티 부모님선교회(회장 전명학 선교사)에 이어 새롭게 창립된 미드시티 부모님선교회까지 포함해 총 8개 지부가 활동 중이다.

문의: 714-379-4896, 714-319-5397

정하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유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이사의 명가 삼성통운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 (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약도: Bus Stop, Lajolla, Fairfax, ORT, 메드포드, Wilshire

백년지대계, 이곳에서 시작하라! - UBM 기독교대안학교를 가다

기초학력 기반 튼튼하게 세우는 눈높이 교육 교회와 가정이 교육에 나선 新개념 학교 ACE 시스템으로 인성·실력 동시 함양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UBM 기독교대안학교. 가정, 교회, 학교가 하나되는 이 시스템은 벌써부터 교육적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공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간다. 동성애 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반기독교 교육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디 대안이 없나 하고 주변을 돌아보지만, '여기 길이 있소' 하고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는 이 하나 없는 형국이다. 벼랑 끝에 선 학부모들의 험 험하고 안타까운 심정은 오죽할까 싶다.

이러한 가운데 여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교육에 올인하는 교회가 있으니 주목해 볼 만하다. 바로 UBM교회(앤드류 김 목사)가 운영하는 기독교대안학교다. 더

이상 공교육에 기대를 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장에 이곳 수업 현장을 찾아가 보라. 직접 눈으로 보면 무슨 얘긴지 공감할테니.

우선 UBM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대상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가지이며, 40년 전통의 ACE(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홈스쿨링 제도를 발전시킨 '처치 스쿨(Church School)' 제도를 도입해 교육한다.

이 시스템의 강점은 기초학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눈높이 교

육'이라는 데 있다.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김영미(39·가명) 씨는 기존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아들 아이 J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이가 수업시간에 너무 산만하다'면서 '정신과 검사를 받아보라'는 교사의 권유로 병원 문을 두드린 김 씨는, ADHD 판정을 받고 기도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UBM 기독교대안학교에 대한 정보를 듣고 아이를 맡겨봤다.

그리고 두 달 여가 지난 지금 그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았을 뿐 아니라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부쩍 성적이 올랐으면서 흡족함을 감추지 못한다.

비단 김 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 학교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 대다수가 공감을 하는 내용이다. 자녀들이 전에 비해 학습에 대한 흥미가 눈에 띄게 고조됐다는 것. 학교 측에 따르면, 이는 개별 진도에 맞춘 '눈높이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공교육에서는 학생 수도 많을 뿐더러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1:1 집중으로 교육하기엔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그러다 보니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위험도 크다.

그런데 현재 이 대안학교의 경우, 학생 수는 14명인데 비해 교사 8명이 붙어 철저히 모니터링 하니 그만큼 개별 학생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수준별 인지 발달 단계를 고려한 ACE 시스템에 기반을 둔 '개별 교육'이기 때문. 자아 판단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춰 아이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는 법을 훈련시킨다.

이 학교의 강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교회가 나서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교육

에 뛰어든다 개인의 삶이 바뀐다는 점에 있다.

가령 전에는 부모가 뭐 하나 시키면 일단 'No'부터 외쳤던 아이가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지 두 달여만에 'Yes' 내지는 'Why?'라고 대답하는 '착한' 아이로 변화했다는 한 학부모의 간증이 이를 방증한다. 이 부모는 "주일 교회에 갈 때만 성경을 보던 아이가 지금은 밤 11시, 12시까지 종일 성경책을 끼고 산다"면서 "또 전에는 틈만 나면 게임을 했는데, 여기 온 뒤로 게임을 안 하게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진짜부터 이런 학교를 찾고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면서 "자포자기하고 있던 차나에 지인을 통해 이 학교를 알게 돼 너무 감사하다"고 그는 말했다.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데엔 매일 큐티로 하루를 시작할 뿐 아니라 ACE 커리큘럼의 내용도 한몫 한다. ACE 내용 자체적으로 아카데미학 훈련과 동시에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끔 구성돼 있다. 학생들은 이 과정 전체에 걸쳐 나오는 만화 캐릭터를 통해 감사, 정직, 겸손, 충성, 배려, 우유, 긍정적 사고, 자비, 친절 등 60여 성품을 순차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그림, 활동, 테스트를 통해 묘사된 성경적 인격 특성이 몸에 배게 되는 논리다.

홈스쿨링의 단점, 교회+가정이 메운다 처치스쿨 효과, 공교육 앞서

그래도 혹시 홈스쿨링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가. 그렇다면, 최근 미프로풋볼(NFL) 덴버 브롱코스의 주전 쿼터백 팀 티보 선수를 떠올려 보라. 시즌 최하위권이었던 팀을 일약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켜 버락 스타로 떠오른 그 역시 홈스쿨링의 수혜자다. 필리핀 선교사였던 부모 밑에서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

해 홈스쿨링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매년 경기 후 한 쪽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잡히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홈스쿨링으로 길러진 인제는 세계 각처에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갈수록 뜻있는 크리스천들을 중심으로 홈스쿨링 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이들은 홈스쿨링의 교육 효과가 공교육의 효과를 훨씬 앞지른다는 현실에 스스로 놀라워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육에 비해 홈스쿨링의 유일한 단점으로 제기되는 '사회성 결여'라는 문제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앤드류 김 목사는 "교회와 가정이 나서서 유기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처치스쿨(Church School)' 제도는 이 부분도 자연 해결된다"고 자부한다. 그는 "개척교회로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정·교회·학교가 하나로 맞물려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뛰어 들었다"면서 "성경적 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면서 각자의 은사가 발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규모가 작은 개척교회라도 열정만 있으면 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기독교 학교 셋팅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상: 킨더가든~12학년
주소: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 90604
문의: www.ubmchurch.com,
714-600-7700, 562-930-2600

정하나 기자

재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감기약 처방
한약으로 한방에 감기 뚫
증상별 처방/천연 한약제
3-7일분 처방 가능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여행자 보험 /건강보험/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제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cvera.com

크로버 탄소매트 crover GREEN HOME INNOVATION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TWIN	FULL	QUEEN	KING
\$249	\$289	\$349	\$429

전기선이 아닌 **탄소 발열체 원단 사용**

전기선 차단: 매트면에 전기선 대신 품의소재 탄소원단이 들어가 있어 전자파 걱정을 없앴습니다.

전기세 절감: 열효율이 뛰어나 전기사용량을 절감해 줍니다. 매일 10시간 사용시 한달 전기사용료 \$3미만

취침기능/온도조절기능: 최우 분리방방 10시간이상 사용시 자동꺼짐

초극세사 원단 사용: 고급스러운 품일 패턴으로 실내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원적외선 방사를 90%: 일반 전기요와 달리 원적외선 복사열 발생으로 몸 전체를 훈훈하게 하며 원적외선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YEAR WARRANTY
확실한 품질보장
제품문제시 1년간 무상수리

제품 바닥면과 고급 원단에 도트 처리하여 미끄러짐을 방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매트 안을 비교해보세요!

베이지 라벤더

속면! 곰팡이 억제!
항균! 냄새 제거!

고국 사랑 대잔치
한국에 계신 부모님,친지,지인들께
무료배송 해드립니다.

제품상담 및
대리점 문의 **323-588-7277**
info@crovergreen.com
2605 S. Santa Fe Ave. Vernon, CA 90058
더 자세한 정보는 본사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crovergreen.com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의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분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효호예지부, 벨앨장로교회, 엘에이사랑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교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헬프, 라디오코리아, 마동림변호사그룹, 백보함의원, Allstar, Precision, 최진욱변호사, 재미남가주향해도모의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 SBOE, EDD, FTB 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은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사우스 베이 하버시에 있는 가나교회에서는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을 공고합니다**
Gana Church in the city of Harbor City at South Bay happily announces the scholarship for students

아래

모집마감(Due Date):
December 28th, 2012

자격요건(Qualification):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 city college, university, special college or high school seniors in Southern California

발 표(Notifying Method):
Will inform those who are qualified individually

제출서류(Submitting Doc.):
Application with additional required documents

혜 택(Amount):
\$ 500.00 for each

대상인원수(How many):
8 students

제 출 처(Sending Address) :
Gana Scholarship Committee
2601 E. Victoria St. Spc. 312, Rancho Dominguez, CA 90220
email: ganachurch@hotmail.com

관심 있는 모든 학우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하셔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사진과 함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yone who is interested in Gana Scholarship check www.ganachurch.org and download the application. Fill out and mail or email to us.

가나교회 장학부
Gana Church Scholarship Committee

“어린이들에게 작은 행복을” 데 할리데이 축제

올해로 14회째, 1천 명 참석하며 즐거운 시간

약 1천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할리데이 축제가 Children's Institute, Inc.(이하 CII) 토렌스 캠퍼스에서 8일 열렸다.

올해로 14회째 맞는 축제의 가장 인기있는 행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장난감 선물 증정이다. 장난감 회사인 매텔(Mattel)을 비롯한 30여개 회사 및 개인 자선가의 도움으로 준비된 장난감들은 연령대별로 어린이들에게 나눠졌다. 어린이들은 장난감을 직접 고르는 재미를 만끽했다.

특히 CII 토렌스 캠퍼스 야외에서 펼쳐진 말타기, 바디 페인팅, 인형극,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사진 찍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는 연말연시를 보내며 소외될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가득한 웃음과 따뜻함을 전했다. 이날 점심은 멕시칸 패스트푸드 업체인 El Pollo Loco가 제공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즐긴 후, 양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있다.

나성영락 목양사역자 감사의 밤 “협력하여 선을”

모이는 예배, 흠어지는 예배 두 축으로 복음 전파와 섬김



나성영락교회 목양사역자 감사의 밤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음식을 서빙하며 목양사역자들을 섬겼다.

나성영락교회(임시당회장 박희민 목사)가 2012 목양사역자 감사의 밤을 1일 교회 체육관에서 개최했다. 나성영락교회 목양사역은 초대교회 모형을 모델로 삼고, 모이는 예배(주일예배)와 흠어지는 예배(구역 셀 모임)의 두가지 축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 구역모임은 월 2회 이상이며, 기본적으로 경배와 찬양, 환영, 말씀, 전도, 사역과 기도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세대별로 나눠 16개 목양이 활동하고 있다. 박희민 목사는 로마서 12장 4-5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역은 목양사역”이라며 “목양사역자들이 가까이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각각 다른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을 이뤄 협력하여 선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려 드리자”고 당부했다. 감사의 밤은 1부 예배에 이어 2부 만찬, 3부 심호섭 집사의 진행 하에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교제의 시간에서는 사역자들의 특송과 악기 연주가 이어져 모인 이들의 기쁨이 됐다. 특히 만찬시간에 부목사 및 장로들이 음식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토마스 맹 기자

LA동부교역지협 연합성가제로 뜨거운 연합 이뤘

교회의 부흥과 신앙 회복, 한국 대선 등 위해 기도



LA 동부지역의 8개 교회가 성탄을 기념해 연합성가제를 열고 하나된 목소리로 찬양했다.

나성동부지역교역자협의회(회장 김민섭 목사)가 연말연시 성탄맞이 연합성가제를 지난 2일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글로발선교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 아름다운교회, 엠마오장로교회, 유니온교회,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한정지교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등 총 8개 교회 찬양팀이 참

여해 ‘사랑의 왕’,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골 오소서 임마누엘’, ‘기쁜 찬양 하세’ 등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탄 전야를 수놓았다. 한편,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나성한미교회 전병주 목사가 >성령과 복음으로 교회마다 부흥의 새물결이 일어나도록 >미국의 청교도 신

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곧 있을 한국의 대선을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또 LA 동부지역의 복음화와 각 교회 연합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선한정지교회 송병주 목사는 >자라나는 2세대들의 가치관 보호와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동부 지역 각 공립고등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부

정하나 기자

미스코리아 이성혜 '하나님께 영광'



이성혜 자매는 지난 8월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미스 유니버스 대회 위해 美 방문 19일 본선 앞두고 기도 요청



미스코리아 이성혜 자매

2011 미스코리아 진(眞) 이성혜 자매가 오는 1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최근 에세이 <꽃은 과정으로 피어난다(마음과생각)>를 펴내기도 했던 그녀는 미국 현지에서 합숙 중이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세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美의 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성혜 자매는 어려서부터 다방면에 소질을 보였고, 네 살때 리틀 미스코리아로 뽑히기도 했다. 미국 유학 중 바이올린을 전공하다 다시 의대로 진학했고, '네가 행복하길 원한다'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파슨스 디자인스쿨로 전로를 다시 틀었다.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던 중 부모의 권유로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 서울 眞과 한국 眞에 잇따라 뽑혔다. 그녀의 수상 소감 첫 마디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였다.

대회 이후 이 자매는 상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살충모기장 보내기 기금으로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 목사)에 기부했고, 1천만원은 코스타와 청소년 사역 중인 아버지의 사역지에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그녀는 1년간 월드휴먼브리지·국제백신연구소·열매나눔재단·한마음혈액원 등에서 홍보대사를 맡았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앞두고도 11일간 '자외선'이 작렬하는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미스 유니버스에서도 동일한 소감 'Soli Deo Gloria(오직 하나님께 영광)'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녀의 이야기이다.

-책을 읽어 보니, 미스코리아는 미모만으로 등수를 매기지는 않는 것 같습

니다. 저도 지역 대표로 뽑혀서 얼떨결에 전국 대회에 나갔는데, 처음에는 드레스 워킹하고 사진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 합숙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정말 힘들었어요(웃음). 여럿이 함께 하면서 어떻게 어울리는지, 몸이 정말 힘들 때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 리더십이나 언변도 보시고요. 몇 시간씩 하이힐 신고 춤추다 보면 아파서 울고 넘어지기도 하고... 옆 친구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화날 수 있는데, 공인이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 훈련이 아닌가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섬기고 돕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평가합니다. 외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아닌가 해요. 외면과 내면을 동등하게 채점하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이 '꽃은 과정으로 피어난다'입니다. 가정은 부질없지만, 만약 眞이 되지 못했다면 어땠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많이 했죠(웃음). 제가 대학교 전공을 3번 바꿨는데, 남들보다 느리게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끈기가 없지 않나 보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전 끈기가 없진 않아요. 하고자 했던 걸 못 해내면 버티지 못하는 스타일이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 음악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고 의대 공부도 왜 그렇게 했나, 바로 파슨스로 보내시지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술 전공자도 아니던 제가 파슨스에서 인정받은 이유는 과거에 음악과 의학을 공부했기 때문이었어요. 미술만 공부하던 이들과는 다

른 세계관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꽃을 보면 그럴싸한 디자인만 생각하는데, 저는 꽃 모양과 비슷한 세포분열이 떠올라요. 디자인이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혁신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렇듯 과정 속에서 슬데없이 버리게 하신 것은 없었어요. 유학 시절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고, 사역에 도움이 됐죠. 제가 진이 됐든 안 됐든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을 하시고 또다른 길을 여셨으리라 믿어요. 전 남들보다 이빠서 진이 됐다고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씀하셨듯 주로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간증을 자주 하시는 걸로 압니다.

미스코리아가 되고 나서도 연에게 활동보다는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꾸준히 해 왔어요. 미스코리아가 되면 10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싶었거든요. 자존감이 세워지면 비전이 서고, 비전이 세워지면 일꾼 하나가 제대로 설텐데 그 일꾼 한 명은 1천명, 1만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능성 있는 이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간증을 갔는데 제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좀 힘들죠. 유학 시절 힘든 이야기, 제 청소년 시절 이야기 등을 들려주면 '복에 겨운 소리 아니냐'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나약하고 실수 투성이지만 이 자리에 세우시고 사명자로 보내셨으니 간증에서만은 이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만 듣고 걸러져야 할 것은 걸러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고요.

간증을 다녀오면 편지들이 많이 와요. 초반에 읽으면 마음이 '뭉'하고 내려가요. '미스코리아가 힘들다니, 유학 못간 사람도 있는데'로 시작해요.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내가 알던 다른 고민들과 달리 누나의 고백에는 진실성이 느껴진다', '반갑은 있지만 누나가 믿는 하나님은 알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보여서 감사하죠. 주로 부정적으로 시작하지만 '누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누나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아직 젊은 나이에, 자신을 활짝 드러내야 하고 공인으로서 생활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겐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일반인에서 공인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너무 큰 변화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처음엔 정상이 없었죠. 미스코리아로 1년간 활동하고 나니, '나'는 없고 '미스코리아 이성혜'만 있더라고요. 그렇게 행동하고 보여지는 게 싫었어요. 이제 하나님 눈만 의식하고 살기로 했는데, 사람들 눈을 의식해야 하는 게 피곤하고 싫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했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만 특별히 준 사명이잖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건데, 거부하고 힘들어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부터 시각을 바꿨어요. '나는 어딴냐' 이게 아니라, 어차피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요. 더 큰 기쁨과 영광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려면 조금 절제하고 손해 봐야죠. 그렇게 생각하니 더 큰 기쁨이 생겨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거기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봉사를 통해 저도 모르게 미스코리아 활동을 하면서 쌓였던 독이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유니버스 대회를 준비하면서 목상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전도서 3장 11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씀을 늘 목상해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주시기 전에 늘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랬듯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8장 23절, 만방이 모였을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예요. 한국에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올해에는 저밖에 없어요. 1백여개국 미인들이 각자의 신을 가지고 나올텐데, 저는 하나님 이름으로 시작했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입니다. 신체적·재정적 조건이 '골리앗 앞의 다윗'이지만, 제가 믿음의 물뿔들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그 분의 뜻대로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요청하실 기도제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펼 수 있도록, 인간이기 때문에 들리는 것, 보이는 것에 약해지기 쉬우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대회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적 전쟁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준비해야 하겠지만, 성령의 검으로 진척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대웅 기자

이·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농치면 후회 비싼 집전화 요금! 몰랐다면! 이제 바꾸자!

2012년 12월

마지막 기회를 잡자!

無 특별 한정

계약기간도 없다*

개통비도 없다*

최대

\$100

크레딧 보상*

모르셨습니까? 아이토크비비!

- ▶ 미국 전화번호·한국 070 번호 동시 제공
- ▶ 집전화 미국·한국 무제한 통화
- ▶ 365일 한국어 서비스센터 운영
- ▶ 휴대폰에서도 국제전화 무료(매월 500분)
- ▶ 30일 환불보장 실시

행사기간 2012년 12월 17일 까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패밀리 알뜰 플랜***

미국 최저가 **\$4.99/월**

- ▶ 수신 무제한
-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 ▶ 기존 전화번호 이전 가능

글로벌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2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발신자번호 표시, 착신전화 기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34.99/월**

-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LA 직영점 (코리아타운 캘러리아 304호)

아이토크비비 213.559.7557 |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이·토·크·비·비 iTalkBB [30일 환불 보장!] **품질의 자신!**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

*\$100크레딧: 글로벌플러스플랜 가입시에 한해 \$100 크레딧을 드립니다. 그 외 가입 플랫폼에 따라 해당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해당 무료 크레딧은 1년째 달에 적용됩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멤버십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취소 요청 시 있습니다. ***특별리 알뜰 플랜은 \$20 선금(deposit)을 받습니다. 모든 플랜에는 Applicable Regulatory/Compliance Fees and Charges(기타수수료 및 부가요금, \$2.95/월)가 부과됩니다. 부가요금은 국제전화에 한해 적용됩니다. 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에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게 특별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센터에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와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은 포함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영토 및 영토외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Korea.iTalkBB.com> 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사를 발간하는 기관: 아이토크비비 (www.koreaitalkbb.com) | 발행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22 2층 아이토크비비 (주) | 발행일자: 2012년 12월 13일

고객지원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PST)

개척한 교회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또 다시... “개척이 내 사명”



과달라하라 한사랑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한 사진.

한 교회를 개척해 놓고 누군가에게 물려주기란 쉽지 않다. 눈물과 희생과 땀으로 고생해 일궈낸 교회를 아무런 미련없이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선교지로 훌쩍 떠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진정한 목회자일 것이다.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니, 바로 우상배 선교사다. 그는 예장 대신교단에서 파송한 제1호 멕시코 선교사다.

10여 년 간 LA 한인타운에서 예수 사랑교회를 개척해 목회하다 어느날 교회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멕시코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돌연 당회장 직을 사임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홀연히 선교사로 떠났다. 그래도 그렇지, 정작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많

이 울기도 울었다. 그러면서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서원을 했다.

그후 1년 남짓 넘어 교단의 요청이 있어 한국에 들어가 선교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았다. 거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 멕시코에서 두 번째 큰 도시, 과달라하라로 선교지가 정해졌다. 2008년 6월 1일, 그 땅을 밟고 첫 교회 설립예배를 드렸다. 교회 이름은 한사랑교회. 그 지역에서 4번째 세워진 한인 교회였다. 이후 4년간 시무하면서 교인수 70여명까지 교회가 성장했다. 그리고 그는 또 이 교회를 맡을 후임



우상배 선교사

대신교단 첫 파송 멕시코 우상배 선교사

목회자를 불색해 세웠다. 누가 이유를 묻는다면, 그저 개척이 좋아서라고 대답할 터다. 빛보다 선교의 ‘맛’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 다음 개척지는 비교적 LA에서 가까운 ‘엔세나다’다. 이는 티화나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한 차례 답사를 다녀온 뒤 최근 작은 예배 처소를 마련했다. 여기서 우 선교사 부부가 개척을 시작한다고.

- 개척이 결코 쉽지 않을텐데, 왜 자꾸 사서 고생을 하시는지.

사명인 거 같아요. 말하자면, 개척 사명이지요. 사실은 과달라하라 지역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이제는 제 나이가 예순여섯이거든요. 젊은 후임 목회자를 모셔 놓았으니, 뒤로 좀 물러서서 안주하고도 싶었는데, 또 여건이나 상황이 그렇게(개척하는 방향으로) 되더라고요. 과감하게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겠사옵고, 완전히 물려주고 나왔죠. 이제 4개월 좀 넘었어요.

- 교회 건축 등 여러가지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을텐데.

한국에 들어가 여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비전과 계획을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내년 즈음에 건축을 돕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한 교회가 있어요. 아직 계속해서 도움을 손길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가 엔세나다에 가서 작은 아파트를 구해 거기서 개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앞서 몇몇 지인들을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사실 아파트 하나 얻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분들과 협력하면서 도움을 받고 동역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죠.

- 엔세나다는 선교적 측면에서 어떤 땅인지.

멕시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모계 사회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실감 많이 많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성을 2개 붙이는데, 엄마 성을 먼저 붙이고 아버지 성을 붙입니다. 멕시코가 원래 가톨릭 국가인데, 이게 순수한 가톨릭이 아니라 변질된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있으나 복음은 없다”란 말이 나오는 거죠. 말로는 마리아 숭상 안 한다고 하지만, 좀 사는 집에 가 보면 정원에 마리아 상을 두고 촛불을 켜놓는 식입니다. 성당에 들어가도 생기가 없어요. 마치 죽어있는 느낌이라까. 그리고도 태어날 때나 결혼할 때 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전

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다행히 그런 가운데서도 개신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 봅니다.

-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선교할 계획인지.

과거 우리 교단의 김치선 목사가 살아계실 때, 민족복음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자연 부락 2만 8천 마을에 (영적) 우물을 파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비전 하에 대신교단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데 전력을 다했어. 제가 막상 멕시코에 가 보니, 멕시코에 이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착박한 황무지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 ‘2만 8천 우물파기 운동’을 벌여 신학생들을 키우고, 교회를 하나씩 세워나갈 것입니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흔히 선교 불모지라 하는 중남미 선교를 위해 미주 한인교회가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기도 후원이 정말 크다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문의: (213) 200-9003 (우은영), 46paul@hanmail.net

정현나 기자

2013년 플랜가입 기간 (10/15~12/7) (올해65세 이상 건강보험)

메디케어A와 B가 있으세요?

C플랜을 무료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 *오랜 경력과 많은 지식으로 내 몸을 관리하듯이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 *의사 선택과 방문이 자유로운 PPO *진료비 부담이 전혀 없는 HMO

City 시니어보험 무료 상담 (323)896-0202 Lic.#0G86101 Hanna Chan Ko **고한나**

RETREAT CENTER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에 관하여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와 미국 국제 선교 센터 (U.S.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1976년 캘리포니아 로버트 윈터에 의해 전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전도 종족에게 전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파사데나에 위치한 35 에이커의 시설은 활기 넘치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과, 교제 할 수 있는 공간, 각 그룹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시작할 수 있는 선교 전략과 훈련을 위한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초청 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는 가진 자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첫째 목표가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재정은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의 선교 사역에 사용됩니다.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기를 초청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 수련회, 컨퍼런스, 결혼식, 각종 행사, 기숙사, 게스트 룸, 장기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 626.398.2415 . conference@wci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 www.wci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독거노인 행복잔치 가든그로브에서

오는 20일 실버아카데미 주최로



새순커뮤니티교회(곽소건 담임목사)가 설립한 실버아카데미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가든그로브에 소재한 비영리 단체인 실버아카데미(원장 곽소건 목사)가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독거노인 초청 행복잔치’를 20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실버아카데미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1부 인사와 나눔, 2부 특별공연과 친교, 3부 점심 식사와 축복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곽소건 목사는 “미국에 이민 와 외롭게 사는 노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이분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용기를 선물로 드리고자 잔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버아카데미는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개설된 과목은 노래교실, 생활영어, 댄스,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시사정보, 교양강좌 등이 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정오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단체는 기부와 자원봉사로 운영되며 각종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주소)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92844/ www.silveracademy.org 문의) 714-329-7906 토마스 맹 기자

찬양인도자들 연합과 교육의 자리

KPLA 찬양인도자 세미나 성황리에



남가주 지역에서 사역하는 찬양인도자들이 가스펠하우스에서 찬양과 기도, 연합과 재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3일 LA에 소재한 가스펠하우스에서 찬양인도자 세미나가 열렸다. 20~30대 젊은 찬양인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KPLA(Korean Praise Leader Association)는 사역자들의 연합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다.

이 행사는 지명현 목사(소리엘, 예배학 교수)의 인사와 기도, 김삼리 목사(실용음악 교수)와 랜디김밴드의 찬양인도로 이어졌다.

이어 정종원 목사(꿈이있는자유, IAM Church)가 찬양사역의 노후에 관해 50여분 간 강의를 했다.

KPLA는 향후 이 지역 찬양인도자들의 연합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세미나를 계속해 갈 방침이며 월간 소식지 발행도 준비 중에 있다.

정기 모임 문의) 김성아 전도사(213-880-3645), 신명진 간사(213-703-4118), kpla150@gmail.com

한주연 기자

화합과 평화의 사명 감당할 한장총 되길

권태진 대표회장과 유만석 상임회장 취임



직전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좌)로부터 취임패를 받는 권태진 목사(우)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제30대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와 상임회장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의 취임식이 11일 군포제일교회에서 개최됐다.

권태진 목사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했고, 미 버킹햄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루지어나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를 취득했다. 성신클럽 제18대 회장, 2010 천만인성령대회 대표대회장, 예상 합신 총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교회희망봉사단 공동대표, 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법인이사, 경기지방경찰청 경복위원, 경기복지뉴스 발행인, 군포제일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 또 19년째 국제펜클럽회원으로서 문학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만석 목사는 백석신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했고, 제42대 수원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예상 백석 총회장, 백석TV 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경기지방 경찰청 교경협의회 실무회장, 남아공선교사훈련원 이사장, 한국목회자협의회 상임회장, 의료재단법인수원시기독호스피스 이사, (사)교회정보연구원 이사장, (사)CLTV인터넷방송국 회장, 수원명성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

권 목사는 취임사에서 "대표회장직을 맡으면서 '하늘처럼 넓어야지, 숲처럼 조화를 이뤄야지, 상한 음식과 식은 음식을 분별해야지'라는 다짐을 하게 됐다. 어차피 주님께 생명을 바쳤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지지 덕택이다. 여러 어르신들의 지도에 순종해 따라가자 한다"고 밝혔다.

유 목사는 "이 직분을 맡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를 돌린다. 또 성도들이 뒷받침을 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미력하지만 한국교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취임예배는 박정원 목사(예장 고신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삼환 목사(명성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약3:17-18)'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진정한 평화는 정치·군사적인 힘으로 이뤄지는 '팍스'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부터 오는 '샬롬'이다. 화목은 세상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우리 마음의 죄를 제거할 수도 없으며, 평화를 이룰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분열보다는 화합할 수 있도록 한장총이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수원 목사(예장 대신 총회장)는 '한교단 다체제를 위해', 최원석 목사(개혁총연 총회장)는 '대선과 국민통합을 위해', 박남교 목사(합동복구 총회장)는 '한장총 대표회장 및 신임원을 위해' 특별기도를 인도했다.

축사는 임석영 목사(합신증경 총회장)와 류태영 박사(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가, 격려사는 김요셉 목사(한교연 대표회장)와 윤희구 목사(직전회장)가 전했다.

임석영 목사는 "한국장로교회는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머리 빈 공룡', '모래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장총이 권태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교회의 세계선교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 한장총으로 인해 장로교회는 '모래성'이 아닌 '찰떡성'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장총은 오는 1월 7일 신년하례식을 갖는다. 신태진 기자

한국적 선교신학의 새 패러다임 필요해

KWMA · 복음주의선교신학회 · 선교신학회 공동 학술대회

한국세계선교협회의(KWMA)와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KEMS), 한국선교신학회(KSOMS)가 8일 공동으로 KWMA 세미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자, 선교신학으로서의 한국 선교신학이란?'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영동 교수(장신대)와 김성욱 교수(총신대)가 각각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김광성 교수의 '케이스 스터디'와 김승호·박영환·박창현·이영철·조명순 교수 등의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김영동 교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모색: 한국 선교신학 개발'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관점에서는 너무나 순진하고 어린 선교로 하나님의 선교에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고도 할 수 있다"며 "차제에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들이 교단이나 교파, 신학의 진영을 잠시 내려놓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관점에서 한국교회 선교를 진단하고 강령을 계속 발전시키되,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폐기할 것은 그리해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동 교수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 모색: 한국 선교신학 개발'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열정과 헌신으로 세계 선교에 동참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관점에서는 너무나 순진하고 어린 선교로 하나님의 선교에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고도 할 수 있다"며 "차제에 한국교회 선교 지도자들이 교단이나 교파, 신학의 진영을 잠시 내려놓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관점에서 한국교회 선교를 진단하고 강령을 계속 발전시키되,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폐기할 것은 그리해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적 선교신학 개발'에 대해서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서 보편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하지만, 이를 화두로 삼은 데는 지난 300년의 근현대 선교가 너무 서구 중심주의적 행태를 보여왔고 이를 통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결정적 약점이 내포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한국 선교는 특히 지난날 서구 선교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문화 특유의 문제점까지 선교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선교신학에 대한 논의는 더욱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한국 선교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점 또는 반성할 점으로 김 교수는 △자기중심적·개교회중심적 또는 독선적인 선교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과열 경쟁과 세

상적인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는지 △모든 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상식과 이성 무시한 것은 아닌지 △실질주의와 자본주의 가치에 빠져들지는 않았는지 △힘에 의한 선교, 강자의 선교를 추구하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빚진 자와 청지기 정신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선교를 교회의 본질이며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기보다, 일회성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유행 중심의 선교로 오해하지 않았는지 등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반성 위에서, 한국 선교신학은 지역적 경계나 문화적 특성에 머무르고 왜곡되기 쉬운 민족주의적 색채를 중시하는 고립적·배타적 신학이 아니라 예후메니칼적 세계 신학과 선교, 일치와 협력을 도모하는 대안적 선교신학이 되어 한다"며 "세계기독교 선교의 동반자로서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21세기 대안적 선교신학으로서 한국 선교신학은 성서적이면서 상황화적이고, 한국적이면서 예후메니칼적이며, 연대와 참여를 중시하면서 실천을 지향하는 선교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한국의 특수한 '정(情)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현대(hospitality)'의 선교를 실현할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특히 어머니의 성품 같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싸안는 성령의 선교는 교회개혁과 성장을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영광과 희락(롬 14:17)'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교회

LA 지역

한현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 토요일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회
믿음으로 그들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30 |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 수/금요일에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김광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 금요일에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 2부 오전 6:30 (화-금)
오전 10:30 (수) |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남예배 매일 오전 7:00 (더문터문 47)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최희영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 토 오전 6:00

세계선교회
하나님교회, 사람들과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6
T. (213) 388-1927, 388-2105

박승부 장로
1기,2기료생배출, 현재3기료생 양성중
- 수기치료료생선교사 양성
- 약품이나 기구없이 온안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학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90005,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마켓 뒤) T. (213) 381-7273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찬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김해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정장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믿음,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진료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효를, 소.친.초.정신의 효를, 바른교회관의 효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제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HYUNDAI PUEENTE HILLS HYUNDAI
푸엔테힐스 현대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사우스 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를 믿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노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고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김바를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cg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최상훈 담임목사
벤처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성한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려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심형섭 담임목사
하늘빛 선교교회
예배에 생명을 잃고 말씀으로 훈련하여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
1011 Grandview Ave. #D Glendale, CA 9120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뉴욕 최대 PCUSA 소속 필그림교회 교단 탈퇴

뉴저지와 맨하탄에 성전을 갖고 있는 뉴욕 지역 최대 한인교회 중 하나인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미국장로교(PCUSA) 교단 탈퇴를 추진 중에 있다.

또 이날 노회에서 신임 노회장으로 박상천 목사(뉴저지소방교회)를 선출했다. 박상천 목사는 현재 뉴저지교협 회장도 역임하고 있는 인물로서 노회 내 교회들이 교단 이전을 신청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노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사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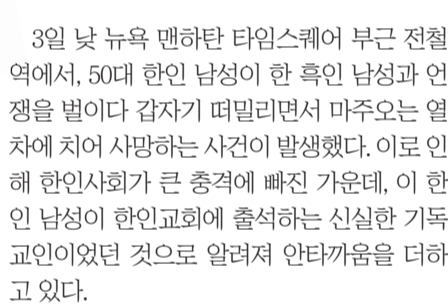
또 이날 노회에서 신임 노회장으로 박상천 목사(뉴저지소방교회)를 선출했다. 박상천 목사는 현재 뉴저지교협 회장도 역임하고 있는 인물로서 노회 내 교회들이 교단 이전을 신청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노회장을 역임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이번 노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사무총장 김득해 목사의 후임으로 조문길 목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확정했다.

김대원 기자

뉴욕 지하철 추락사 한인 "헌신적 성도였다"

침통해 하는 뉴욕우리교회 담임목사와 교인들
을 당하거나 교회에 기쁜 일이 있거나 교회에 행사가 있거나 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오신 분이었다"며 "토요일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혼자 청소를 1년 가까이 하시기도 했을 정도로 헌신적이었다"고 말했다.



故 한기석 씨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 한 씨는 한 인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성도였다.

3일 낮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부근 전철역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한 흑인 남성과 인쟁을 벌이다 갑자기 떠밀리면서 마주오는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뉴욕우리교회 성도들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10월말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교회 성도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솔선수범해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돕는 등 선행도 양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당한 한인 남성은 한기석 씨(58)로 70년대 뉴욕으로 이민, 세탁업에 종사해 오다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사업이 주춤한 가운데 재기의 발판을 준비하던 도중 변을 당했다.

유족들은 큰 충격 속에서 언론사들의 과도한 취재 경쟁을 피해 현재 조원태 목사가 제공한 거처로 옮긴 상태다.

워싱턴 지역 각 교단 및 기관 대표자 간담회



워싱턴 교계 지도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교회의 연합과 소통을 논의했다.

워싱턴지역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범수 목사)가 연합사역과 교회간의 소통, 화목, 질서를 위해 워싱턴지역 각 교단 및 기관 대표자들을 초청해 12월 10일(월) 오전 11시 맥클린한인장로교회(담임 임철성 목사)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PCUSA 대서양한미노회, KAPC 워싱턴노회, KAPC 수도노회, PCA 수도노회, 미주성경결중부지방회, 기독교감리회 미주특별연회 워싱턴지방회, 그리스도의 교회, SBC수도침례교회협의회,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등의 교단 대표들과 워싱턴교회 증경회장협의회, 워싱턴지역여성교회연합회, 워싱턴청소년재단, 워싱턴지역기독교장학재단, 국제성경연구원, 미주성경통독선교회, 워싱턴한인목회연구원, 워싱턴트리니티연구원, 워싱턴말갈선교단, 크로스공동체 등의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주요한 기자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미국 더 종교적으로 변한다

나이 들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북부보다 남부가 종교성 높아

미국인들은 매우 종교적이며, 미래에는 더욱 종교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어른조사기관 갤럽의 편집장인 프랭크 뉴포트는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매우 혹은 평균적으로 종교적'이며,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살펴볼 때 미래에는 미국인들이 '더욱 종교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갤럽에서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40퍼센트의 미국인들은 "매우 종교적"으로 분류됐으며, 29퍼센트는 "보통 종교적"이었고, 나머지 31퍼센트는 "종교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일반적인 예상처럼 미국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종교적으로 변하며,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더욱 종교적이며, 남부쪽이 가장 종교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적인 그룹으로 분류됐다.

뉴포트는 향후 20년 내에 65세 이상의 미국인들의 숫자가 2배 가량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종교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 점점 전통적인 개신교인들은 감소하는 반면 특정 교단이나 교파에 속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증가할 것이라고 뉴포트는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화요일 출간된 뉴포트의 새로운 저서 『God Is Alive and Well: The Future of Religion in America』에서 미국의 미래의 종교성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박헌희 기자

10대 범죄 청소년에게 "감옥 갈래 교회 갈래" 판결

종교 자유 문제 놓고 인권단체와 갈등

오클라호마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한 10대 청소년에게 고등학교 졸업과 10년간 교회 출석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판사는 이 과실치사 범죄에 대해 고의성이 없고 범인이 청소년이란 점을 감안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과 교회에 10년간 출석하는 전제로 징역형이 아닌 10년 보호관찰령을 내렸다.

그러나 미 법원이 범죄자들에게 감옥과 교회를 놓고 선택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옥 중 선택하게 했다. 감옥을 선택하면 수감되고 벌금을 내는 것이고, 교회를 선택하면 1년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몇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한다.

당시에도 ACLU는 이런 결정은 종교자유와 헌법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게다가 아무리 경범죄자라 해도 교회에 출석하면 벌금과 수감생활이 유보되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수감생활까지 해야 한다는 면에 조정을 맞추면 충분한 법적 논쟁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영신 기자

기독교 의약 업체,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논란



의약적 목적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시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 의약 업체가 마리화나와 함께 성경책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진 논란이 일고 있다.

새크라멘토의 캐나 케어(Canna Care)는 의약품 마리화나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한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그룹인 '아메리칸 포세이프엑세스(American for Safe Access, ASA)'의 크리스 헤르메스(Kris Hermes) 대변인은 "우리는 수 년간 캐나 케어의 운영자들과 함께 정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헤르메스는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와의 인터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ASA와 미국 내 신앙 공동체들 간의 다리를 놓고 있다"고 전했다.

헤르메스는 또한 "ASA는 유니버설라이프 교회(the Universal Life Church, ULO)와 함께 다양한 정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현재 미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일 뿐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크리스천연합(Christian Coalition)의 창립자이자 '700클럽' 운영자인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시애틀에 위치한 대형교회 마르스 힐(Mars Hill)의 마크 드리스콜(Mark Driscoll) 목사는 최근 자신이 피넨 온라인 저서에서 이는 어리석고 미성숙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리화나를 즐기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미성숙하고 무책임하다. 또한 점점 더 나빠진다"며 "소년이 소년같이 되면 나쁜 게 없으나 어른이 소년처럼 행동하면 이는 정말 문제"라고 비난했다.

강해진 기자

O.C./엘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되는 교회, 진노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배명한 담임목사, 로템장로교회, 마음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리스크천이다. 내가 기리스크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마음을 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회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축복받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김한요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한중수 담임목사, 엘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최상준 담임목사,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지사론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되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박세록 대표, SAMCARE INTERNATIONAL, '길을 걷는 세례',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이 되어, www.samcare.org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인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4415 Imperial Hwy, Whittier, CA 9060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재\$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연말연시 특별세일

항상 고객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서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어느 때 보다 더 풍성하게 한 뿌리라도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구연산도 더 많이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고 더욱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연말을 맞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말연시 특별 세일

	산삼 수령	뿌리당 무게	3차 파괴 가격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1,700	\$1,200/LB
		2호:15-22그램	\$1,200	
중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3호:9-14그램	\$1,100	\$850/LB
		4호:5-8그램	\$ 900	
소	5호(10년-30년근)	5호:1-5그램	\$ 600	\$400/LB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2년 11월 5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령	중전무게
\$600	270그램	약 30 뿌리	평균 30-50년근	200그램
\$200	110그램	약 20~30뿌리	평균 20-30년근	90그램

\$200 산삼은 200그램부터 130그램, 110그램, 90그램 등 다양하게 종류가 있습니다.

생살일지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식품 검역소, 면세통관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선물 증정



\$ 30

산삼 200볼 구입시마다 /2병
구연산 \$80(소매가 기준)
산삼 600볼 구입시마다 /8병
구연산 \$280(소매가 기준)



\$ 50

NY, PA, VA, NC, WI 최상급 산삼 자생지에서만 채취해 옵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싱싱하게 보존해 판매합니다. 씹거나 달이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드시도록 복용법을 드립니다. 홍삼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지만 **진짜 야생 산삼**입니다.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산삼도매 한인 최대 유통회사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30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업체

HQ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70그램~~ **110그램** / 평균 10-30년근 30~40뿌리



\$200
소매가
~~\$1,000~~

~~200그램~~ **270그램** / 평균 40-50년근 30~40뿌리



\$600
소매가
~~\$3,000~~

※ 모든 제품은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

31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세일기간 :
12월 31일까지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위산과다 개선과
위산역류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볼/ea
+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볼/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280볼)~~ **100볼**
or 오리지널8병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270볼)~~ **100볼**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280볼)~~ **100볼** +tax



\$100 구매시마다 산삼 1뿌리 공짜선물!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HQ Health, Inc. / HQ 산삼

100%
환불 보장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REVIEW

기독교인의 정치적 관점... 진보와 보수를 넘어라

이 시대 성경적 세계관 구현할 후보는 누구인가 신실한 정치 참여로 이웃 사랑 실천해야

오는 19일로 예정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면 성경적 가치관을 나라를 섬길 후보가 누구인지, 종교편향과 안티기독교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줄 후보가 누구인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면서 나아가 통일 시대까지 생각하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근 몇 년간 기독교 출판계에 등장한 관련 도서들을 읽어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후보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 진보와 보수란 이분법을 넘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은 <진보 보수 기독교인(Republicrat·지평서원)>이다. 역사신학자이자 사회평론가인 저자 칼 트루먼은 정통 개혁신학 관점에서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보수적 정당정치와 기독교적 충성을 너무 밀접하게 연결시킴으로써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정치적 입장들을 취한다면, 입장이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진보주의자들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저자는 낙태와 동성애에서 보듯 성경적 가치관과 거리가 먼 진보 정치에 낭만적인 신뢰를 보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비판적이다.

애국심은 훌륭한 덕목이며 그리스도인은 선량한 시민이 돼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치에 대입시키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 "복음은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할 뿐, 특정 국가의 정책들에 찬동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요구한다면 세속적인 사고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자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개신교와 자본주의 윤리의 유사성을 밝힌 막스 베버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각 정당이 양 극단에서 차이점을 부각시킬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복잡성을 감안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참여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

"기독교의 자유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펼쳐져 나옵니다."

로저 올슨은 <보수와 자유를 넘어 21세기 복음주의(조이선교회)>에서 사회적·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복음주의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통보다 성경, 도덕주의보다 성품, 민족주의보다 나라 사랑을 외치면서, 사회주의가 아닌 부의 재분배, 가법치 않은 예배의 현대화, 신학을 포용하는 상대화도 주장한다.

복음주의는 '혁신'의 종교이며 영적 태도와 마음의 습관이고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므로, '보수'와 '자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자는 것이다.

복음주의자라면 '죄인은 사랑해도 죄는 미워한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조건 없이 죄인들을 용납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혼이나 동성애, 알콜중독 등 성경이 금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도 말이다. 이



대선을 앞두고 나온 도서들과 그 밖에 읽어볼 만한 책들

를 통해 사회적·정치적 보수주의자와 전통주의자들에서 벗어나 '탈보수적인 복음주의'로 진입해야 한다. 복음주의자가 보수적이어서 할 때가 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독교에 휘감긴 전통의 경우 '급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낙태와 동성애, 인권과 민주주의 등 첨예한 이슈를 바라보기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IVP)> 등을 쓴 로날드 사이더는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홍성사)>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정치계로 대거 몰려간 지난 30년간 효과가 있었지만 한계도 드러났으니, 이 '비참한 실패'를 거울삼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기독교 정치철학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 우면서도 성경 말씀을 입각한 정치에 대해 고심하고, 성경적·규범적인 비

전과 사회연구를 접목하여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낙태'에 대해 저자는 많은 국가들이 폭넓은 정황으로 이를 합법화한 현실에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입장 간의 딜레마를 설명한다.

여기에는 낙태 찬성론자들의 '태아는 인간이 아니다'란 주장이 남지만, 저자는 성경 어디에도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고 과학적으로도 임신 시점부터 태아는 인간임이 인정됐다고 반박한다. 국가는 보통 상반된 견해에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하지만, 인간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그래서 안 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낙태 제한법을 만들도록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미혼모 문제나 입양법 개선 등으로 낙태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않도록 입법 활

동이나 시민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

안락사나 유전공학, 사형제도나 전쟁 등 생명과 관련한 사안도 이와 동일하게 풀어가야 한다. 저자는 "성경에 바탕을 둔 균형잡힌 정치 의제들을 포용하고, 적절한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며 "또 성경에서 겸손과 자신감을 겸비하는 법을 배워 신실한 정치참여로 이웃사랑을 실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물론, 정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는 최근 펴낸 <그리스도인의 정치색깔(우리시대)>에서 '죄우의 색깔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색깔'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 목사는 낙태나 동성애 등 민감한 문제보다는 최근 한국적 이슈인 경제나 복지, 환경과 사법정의, 평화와 통일 등을 놓고 해당 성경구절을 제시하면서 나름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다.

그는 "건강한 기독교 시민의식은 미숙한 신앙을 벗어나는 데서 시작한다"며 "공적인 예의와 정치, 책임의식과 배려심을 함양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밖에 <정치하는 교회 투표하는 그리스도인(새물결플러스)>,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IVP)>, <정치하는 그리스도인(SFC)> 등도 독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기독교 서적들은 성경적 세계관 확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은 사회나 정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을 먼저 손에 집어드는 것도 큰 손해는 아닐 것이다. 이대웅 기자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통신생 대모집
online

2012년 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가을학기 · Th.D·Ph.D학위 7명, ·M.Div학위 7명 \$10000,00 장학금지급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1.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컬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2.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3.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6. 통신강의 (아카데미컬 학위취득)
4.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② Indian University
5.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③ Lee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⑤ Oral Roberts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신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통신생 전공 최상의 장학금 지급 편입생 우대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Div)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Th.M)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상담학 Ph. D.	신학 Ph.D	48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 Ph. D.	48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협력학교 학장 : 양병삼 목사 Th.D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213) 503-5330 수시접수

나로호 발사를 보며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첫 걸음인 나로호가 세 번째 발사를 한다고 해서 조금 늦은 밤이지만 TV를 통해 지켜 보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우주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유인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대인데 간신히 지구 궤도에 로켓 하나 올리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미국에 사는 마당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이 우주를 향해 다가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니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웬지 우주를 향해 날아갈 그 로켓 앞에 어린 시절로 돌아간 나도 함께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남해안의 나로도라고 하는 곳에 우주기지를 세우고 거기서 발사를 하는데 우선은 섬과 바다로 둘러싸인 나로도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좋았다.

그런데 벌써 두 번째 실패를 하고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하는데 다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또 성공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단다. 연료 주입도 끝나고 드디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성공인가 보다 하고 방송을 보는 순간 아나운서가 카운트다운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니 기어코 전기 문제로 이 세 번째 발사도 중단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 어쩌나 실망스럽고 속이 상하는지! 하늘을 향해 멋지게 솟구치는 나로호를 기대했던 동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세 번째도 또 발사를 못하니 '이게 무슨 참회한 일인가' 하는 마음도 들었다. 물론 한국이 우주개발에 늦

게 뛰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달나라 갔다 온 게 벌써 오십년 가까이 되고 다른 선진국들도 벌써 몇 십년 전에 다 성공한 기초적인 로켓 발사에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더니 '한국의 실력이 고작 이것 밖에 안 되는 거'란 생각도 들고 '도대체 우주발사를 책임진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실수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일까'라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현장에서 발사 실패를 중계하려고 했던 방송국으로서도 크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카운트다운이 중단되었다고 하는 순간 그들의 표정도 어두워지는 모습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차분히 방송을 진행하고 또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더욱 더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다짐을 한다.

그러면서 이 순간 모두가 다 실망하고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크게 낙심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 일에 종사했던 젊은 연구원들이니 모두가 함께 저들을 따뜻하게 격려하자고 하는데 하마터면 난 눈물이 날 뻔했다.

그리고 보니 과연 그랬다. 우리도 다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늦은 밤까지 TV 앞에 앉아 있었지만 이 실패에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낙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젊은이들일 것이다. 그리고 보니 언젠가 나로호 발사가 실패한 뉴스를 볼 때 한 여자 연구원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던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

방송을 듣자니 어떤 젊은 연구원들은 이 일을 위해 몇 년 동안 집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 젊은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한 순간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던 마음이 속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 어떻게 좀 위로해 줄 수는 없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런 마음에 다음에는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다. 나로호의 발사를 보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다. 그런즉 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조국을 떠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다. 그래서 나라 발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여 더욱 더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주(酒) 때문에 주(主) 때문에



김세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얼른 그의 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방바닥에 선혈이 남아있었습니다. 가엾은 아내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미 초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잔인한 그의 모습이 무섭기도 했지만 끓어오르는 분노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당시 서른을 갓 넘긴 젊은 목사였던 저는 제 안에도 그 눈 못지않은 광기(狂氣)가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임자를 제대로 만난 그는 하얗게 질려서 "아! 너 목사 맞아?"만 반복하면서 방바닥에 나뭇가지로 깔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술에서 깬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은 주먹끼리" 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는 자신의 숨겨진 유년의 아픔을 굵은 눈물을 떨구며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매일 어머니를 때렸습니다. 일곱 살 난 그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하며 말리다가 수도 없이 밖으로 끌려 나가 기둥에 묶인 채 허대로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술주정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어느 날 어린 자신을 버려두고 어디론가 멀리 도

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십 년이 지난 지금 자신의 모습은 바로 그 저주스러웠던 아버지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원래는 큰 기업에 근무하던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고질적인 술 주사 때문에 직장 상사를 두들겨 패고 회사에서 쫓겨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나중에 그를 설득시켜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물론 가족들도 함께 상담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침내 치료를 다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그가 제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말들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함께 물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먹은 약 중에서 최고의 약은 목사님의 기도 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절대로 술 잡숫지 마십시오. 저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고맙게도 그는 알코올 중독을 잘 이겨내 주었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酒) 때문에 고생하다가 주(主)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한 가정(家長)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술만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 맞아?" 싶을 정도로 포악해집니다. 아무에게나 폭력을 휘두릅니다. 빼만 앙상하게 남은 가련한 아내와 예쁜 딸아이를 죽도록 때립니다.

어느 주일 중학교 1학년애 다니던 그의 딸이 교육담당 목사였던 저를 찾아 허겁지겁 달려 왔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들어

이번 성탄에 꼭 기억할 분들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생각하면 애절하게 그리워지는 할머니의 자잘한 염려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젊었을 때에 자식을 제대로 기르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대부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거의 무한대의 사랑을 손자와 손녀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티 브링클리 가 쓴 '틀니도 무섭지 않다'는 글의 일부입니다.

『할머니께서는 동생과 나를 키워 주신 적이 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우리를 돌보다가 힘이 들어 잠깐씩 쉬어야 했다. 할머니께서는 휴식을 취할 때마다 우리를 마룻바닥에 앉혔다. 그리고 틀니를 빼서 우리 앞에 가만히 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움직이지 마라. 틀니가 너희를 물지도 몰라!" 우리는 틀니가 호랑이처럼 무서웠다. 그래서 할머니가 틀니를 다시 끼울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우리 눈에 할머니는 위대한 마술사로 보였다. 이를 뺏다 끼웠다 할 수 있는 마술사. 할머니는 잠시 쉬고 나면 틀니를 다시 입에

끼우시고는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때 할머니의 웃음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우습게도 그 미소의 포근함 때문에 나는 이제 틀니가 조금도 흉칙해 보이지 않는다.』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준비성이 있는 분들은 벌써부터 성탄절에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마음 속에서 고르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이번에는 먼저 그분들의 선물부터 골라보십시오. 한국에 계신다면 이번 주간에 선물을 보내서 성탄절 전에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전에 여러분을 길러주셨던 그분들의 사랑을, 아름다운 성탄카드에 엮어서 보내 보십시오. 누가 압니까. 그 카드와 선물이 할아버지 내의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실런지... 돌아가신 후에 흘리는 눈물보다는 살아계실 때에 보내 드리는 감사의 말과 사랑의 선물이 그분들을 더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김인호 CPA
 562-467-1114
 cerrit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213) 402-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10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목사도 소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케네디와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것은 TV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매스미디어의 위력을 잘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 SNS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팔로워가 600만명이 넘습니다. 페이스북 팬 페이지는 정치인 랭킹 세계 1위입니다. 그 수가 1,900만명이나 됩니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팬을 가진 대통령입니다.



양성필 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지금 전세계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로 어디서나 대화를 주고 받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대선에 나온 두 후보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를 통해서 대선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피아노 치는 모습, 문재인 후보가 낮잠자는 모습까지 공개하고 보여주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이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자기 늘면서 노인들까지도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문명에 뒤떨어진 사람이 된다는 말까지 했는데, 이제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예 문명에서 제외될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대화를 주고 받는다는 측면에서 소셜미디어의 힘은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여기에 집착해서, 도무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17분마다 휴대폰에서 올라오는 소셜미디어에 응답하느라고 일과 공부에 집중을 못한다고 합니다. '집중력

장애 증후군'까지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소셜미디어는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나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필수적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정치, 경제, 사회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창립한 주커버그는 초창기에 야후로부터 10억 달러를 제안받은 대각 요청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감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목회자까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은 하는데 아직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려면 하루에 세 번 정도는 들어가서 댓글도 달고 글을 써야 합니다.

이제는 목회자도 '소셜목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성도들과 목회자들 간에 공감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꼭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목회자 간에 성도 간에 소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소셜미디어가 발달을 해도 심방은 필요합니다. 깊은 간편하지만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로 글을 보냈다가 오해를 산 적이 많습니다. 글은 받는 사람의 기분과 이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 심방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에 배와 성도 간의 교제가 소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힘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자'는 말의 앞 글자만 따서 '예기전가'를 저의 목회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기전가'의 비전은 저만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기전가'의 명령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은 오로지 '예기전가'로 가능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하나님과의 소통, 성도 간의 소통을 생각할 때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소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유동근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2)



유동근 목사
한국 온누리선교교회

4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세상은 어두움이였다. 그가 비로소 세상의 빛으로, '태양'으로 오신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빛이 없고 어두움 뿐이다. 어두운 인생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빛이 속에 들어왔을 때부터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어두움에 있으면 죄와 방탕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되며 목적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예수를 말하고 어두움은 세상과 어두운 우리들 인생을 말한다. 2천 년 전 어느 날 예수가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추셨다. 그러나 세상은 그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말이다. 주 예수는 세상에 태양처럼 빛으로 오셔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려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주의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이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참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악의 세상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려 오신 주 예수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심자가에 넘겨주었다는 것이 복음서의 골자이다. 그들은 어둠도 너무나 어두워서 빛이시요 생명이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심자가에 넘겨준 것이다.

철학과 과학은 빛인가? 도덕과 여러 종교는 어떠한가? 모두 어두움이다. 구약의 율법은 어떠한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아직 참 빛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세상의 빛이다. 요즘 사람들은 도덕과 철학, 심리학과 성공학은 알지만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 이미 다른 것들로 머리가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추구도 예수를 아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알고 믿게 될 때만이 참 생명과 빛을 얻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은 오랜 전통이다. 그 원조는 동방박사들이다. 멀고 먼 나라에서 나귀를 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 그 시작이다.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블랙 프라이데이 성탄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상점마다 장사진을 친다.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담아 카드를 써서 주고 받거나 선물을 보낸다. 서로 선물을 나누는 이런 전통은 크리스마스를 더욱 의미있게 해 준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해 머리카락을 잘라 시계줄을 산 아내, 시계를 팔아 머리빗을 산 남편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사랑이 담긴 선물을 주고 받

는 일은 참 아름답다. 나는 작년 성탄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글을 받았다. 이 글의 내용은 간단하다. 돈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르는 소녀가 한 상점에 진열된 보석을 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 왔다. 소녀는 마음에 담고 있던 보석을 가리키며 "이것을 주세요"라고 했다. 주인 아저씨는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아이는 "저는 어머니를 주고 언니가 저를 키우고 있는데 언니에게 선물하려고요"라고 했다.

그 아이는 자기의 저금통을 털어 마련한 돈을 손수건에 싸서 가져왔다. 돈을 본 주인은 보석의 가격표를 얼른 떼어낸 후, "네가 가지고 온 돈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아저씨가 깎아 줄테니 걱정마라"하면서 보석을 포장해서 보냈다.

그 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젊은 여인이 가게에 들어와 "이 물건이 여기서 산 것이 맞나요"라고 물었다. 주인이 맞다고 하자, "이게 진짜 보석인

가요"라고 다시 묻는 것이다. 주인이 진짜라고 하자 그 여인은 "이 보석을 산 아이는 이것을 살 만한 돈이 없는 데요"라고 했다. 그러나 주인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큰 돈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사랑의 전부로 산 것이니까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여인은 동생의 사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고 주인은 아름다운 두 사람의 사랑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다.

내가 존경하는 김 장로는 해마다 성탄이 되면 미리 준비한 사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보낸다. 금년에는 자신은 암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냈

다고 한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인식하지만 남을 돕는 일에는 언제나 지나칠 정도로 큰 마음을 쓴다. 김 장로와 같이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온기가 나에게도 스며드는 것 같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처음 시작한 동방박사들은 좋은 분을 보여 주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외롭고 소외된 분에게 정성과 사랑으로 드린 것이다. 그리고 미려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어떤 대가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진가! 우리도 이번 크리스마스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동시에 외로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여러분의 사랑도 가지면 어떨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 부인병 및 힘든 질병에서 빠르게 증상 개선시키는 청 한의원

대단히 놀랍고도 배바른 효능의 특수침술, 특수진맥

이번주 강의: 당뇨, 고혈압의 합병증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심각하고도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초기에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에만 의존하다 보니 안 보이거나 심장투석, 다리절단과사, 심장병, 뇌경색 중풍 치매등으로 고생하다 무척 힘들게 되는데 어느 정도 약을 줄이거나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은 빠른 증상개선으로는 좋지 시간만 흐르면서 작은 혈관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중요장기인 뇌, 눈, 심장, 신장 및 손, 발등 중요한 부분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특수침술을 통해서 오래된 통증을 낫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수 분 정도에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약해진 장기의 균형을 도와주어 합병증 및 통증에서 벗어나게끔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도와드립니다. 올바른 가르침, 준비된 생활로 건강도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청 한의원의 상상하기도 현실의 세계에서 믿기 어려운 빠른 효과의 특수침술은 과연 무엇인가...

예) 70대 바라보는 LA 인근에 사는 김 선생은 허리통증으로 너무나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본원에 와서 침을 맞은지 불과 2-3분도 채 안되어 그 즉시 그 괴로운 통증이 사라진다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신기하다,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친구에게 그 상황을 얘기한즉 아무도 믿기 어렵다고 말한즉 3주가 지난 이후에도 통증이 없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예) 50대 남성으로 오렌지카운티에 사는 강 선생은 오십견으로 팔을 들거나 움직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한 6개월 정도 고생으로 여러 병원을 다 했으나 계속 아파서 본원에 와서 치료후 5분도 안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그 즉시 움직이니 현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믿지 못하고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 70대 할머니 엉덩이부터 땀기고 발끝까지 아파서 좌골신경통 및 알 수 없는 통증으로 2년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다 정말 남들이 2-3분 정도 후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방문 그런데 5분도 안되어 그 오래된 통증이 사라진다 이것은 상상으로 정말 이해가 안간다고 감탄하시며 뒤돌아 가면서 감사해하는 모습이었다.

예) 젊은 학생이 6개월 정도 전에 다리를 다쳐서 심하게 아파서 병대를 갖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온갖치료를 했으나 큰 진전이 없어 통증을 호소하는바 침을 놓은지 5분도 안 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자유자재로 무릎을 움직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느냐 말하면서 Amazing이란 말을 계속 연거푸 말하고 있었다.

예) 60대 후반의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배 부위의 통증으로 무수 큰 병이 아닌가 걱정하면서 내원한 바 침술 후 3분도 안되어 그 통증이 사라지고 없어졌으니 남편도 지켜보면서 정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가 힘들고 상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너무나 감사해 하였습니다.

*여기의 임상사례는 개개인 증상, 병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통증이 사라졌다해도 다시 올 수 있으며 통증이 사라진 것이 완치된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계속적 치료요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은 완치가 없으며 평생동안 관리조절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Coupon 60% off 12/31/12 까지

특별 절호의 기회! 놀라운 당뇨 신선단2병 사면 1병 FREE 당뇨병의 희소식!!

왜 당뇨신선단이 좋은가?



더 자세한 사항은 www.shinsundan.com을 참조 24시간 주문전화 714.636.1412

청 한의원 714) 636-1412(24hrs) 714) 349-7995/ (213) 385-5833 9355 Chapman Ave. #108 Garden Grove, CA 92841/ 3003 W.Olympic Bl. #201, LA



Korean Healthy Fresh Kitchen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비비고
‘헬시 & 키친’ 新 한식 메뉴로
세계인의 입맛 홀리다

지금은 바야흐로 이미지 메이킹 시대다.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 역시 다양한 브랜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브랜드 하나만으로 국가의 호감과 신뢰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뭘까? K-POP을 비롯한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열풍의 주역들 사이 눈에 띄는 하나, 바로 오색나물이 조화로운 한국의 대표 음식 비빔밥이다. 다양한 재료를 넣고 섞어 원재료와는 다른 새롭고 독특한 맛을 창조해 내는 것이 비빔밥의 특징이고 장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가장 한국적인 요리다.

아이디어 또한 기발하다. 넣는 재료에 따라, 또 누가 비비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심오한 음식이다. 넓디넓은 스펙트럼이 비빔밥의 매력이다. 오죽하면 조선 후기 실학자인 이익은 음식을 주제로 쓴 시에서 “비벼서 먹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읊었을까.

철저한 맞춤메뉴, 커스터마이징 전략 ‘원더풀 코리아’

이 기막힌 비빔밥의 진가는 파란 눈의 미국인들에게도 통한다. 세계

인을 겨냥한 프리미엄 한식 브랜드 ‘비비고’가 까다로운 미국인들의 입맛을 홀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비고’의 주 메뉴는 신선한 나물과 채소를 주요 재료로 만든 오색(五色) 오미(五味)의 저칼로리 비빔밥이다.

한식 고유의 맛과 비빔밥의 전통을 살리면서도 개개인의 기호에 맞게 밥과 소스, 토핑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한식 브랜드로 개발했다. ‘비비고(bibigo)’라는 브랜드는 ‘비빔밥’과 ‘비비다’의 우리말 어원을 살리면서 ‘가지고 간다’는 의미의 ‘투 고(to go)’를 조합해 만든 것이다.

남가주에선 2년 전 웨스트 빌리지에 오픈한 웨스트우드 UCLA 1호점에 이어 지난 4월 비벌리힐스 2호점을 런칭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다.

비벌리힐스점은 ‘South Beverly Hills Dr’와 ‘Charleville Blvd’ 교차 지점 인근에 위치해 있다. ‘Chin Chin’, ‘California Pizza Kitchen’, ‘Momed’, ‘FRIDA’ 등 중식, 일식, 멕시칸 등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는 이곳에서 비비고는 대표 한식 메뉴로 이들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총 65석 규모의 웨스트우드 UCLA

1호점이 학생 상권으로 QSR(Quick Service Restaurant)인데 반해 비벌리힐스 2호점은 CDR(Casual Dining Restaurant)로 구성, 직장인들과 여행객을 타겟으로 모던하고 캐주얼한 다이닝 형식의 한식을 즐길

수 있다. 총 70석 규모의 비벌리힐스점을 다녀가는 주 고객의 8할이 백인이다. 미국 시장진입에 안정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다. 최근엔 헐리웃 배우 앤 해서웨이가 ‘비비고’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웰빙族 · 다이어터들이 주목하는 건강식

비비고는 ‘사우스 비치 다이어트(South Beach Diet, 저인슐린 다이

에트)’를 응용해 탄수화물과 채소의 밸런스를 맞춰 신개념 웰빙 한식 개념을 구현했다.

비빔밥 한 그릇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지방 등 5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

전 세계 입맛에 맞춰 밥 · 토핑 · 소스 4종류씩 개발

서 선보이기 위해 라이스 샐러드(Rice Salad)의 개념을 도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메뉴 구성은 주로 비비고라이스와 비빔밥, 돌솥 비빔밥, 타파스를 기본으로 했고, 소주각테일, 복분자주, 생막걸리와 다양한 와인 등의 주류와 소다류 음료를 제공한다. 전 세계인의 입맛에 맞춰 밥의 종류도 백미, 발아현미밥, 흑미밥, 찰보리밥의 4가지로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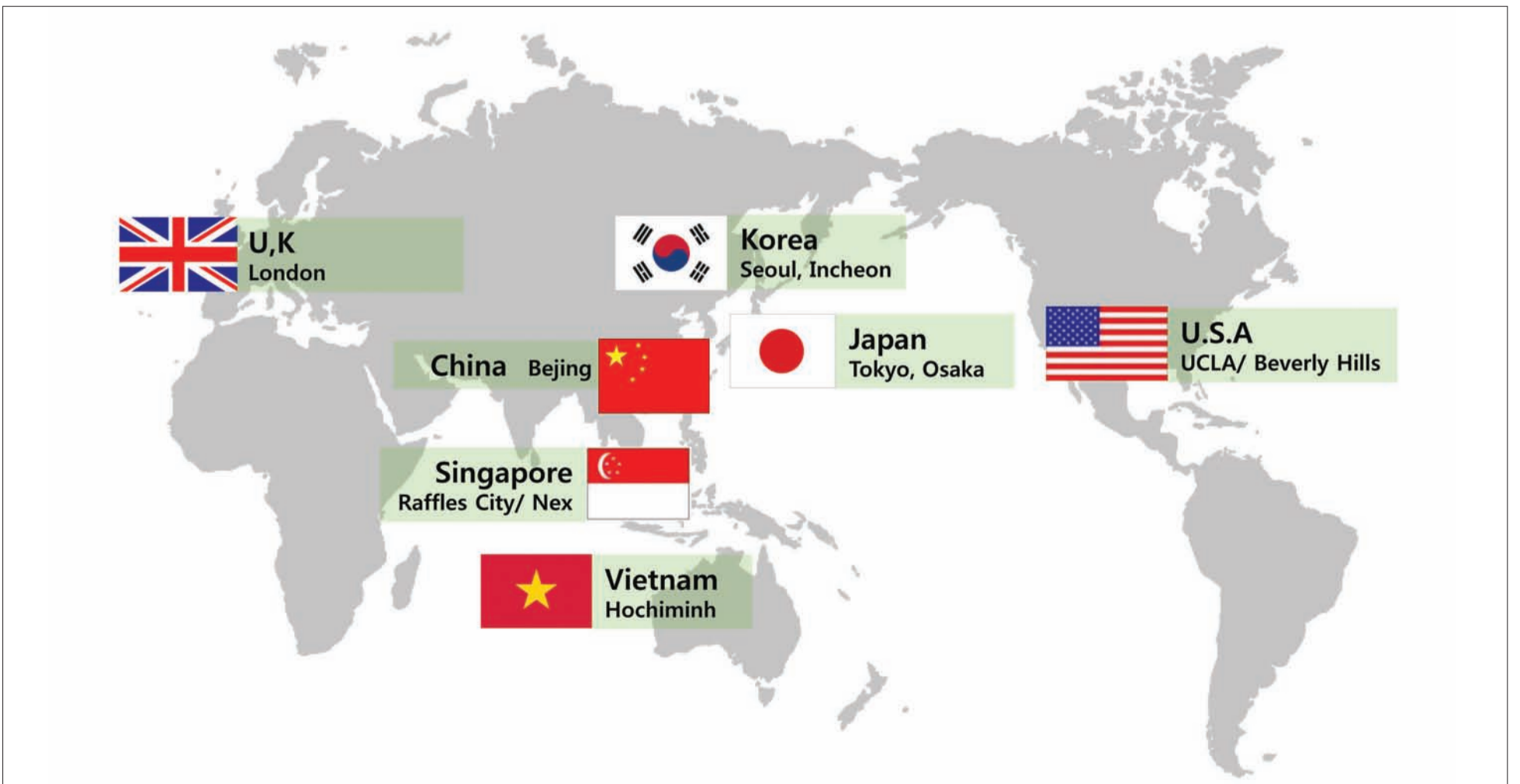
비빔밥 소스로는 취향에 따라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단맛을 더한 고추장과 참깨, 쌈장, 레몬 간장 소스 등 4가지 종류가 제공된다. 하지

다. 그래서 몸매관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거나 작은 양을 먹는 여성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고기를 제외한다면 채식주의자들도 환영할 만한 재료들로 구성된 것도 ‘비비고’ 비빔밥의 매력이다. 일부 미국인들은 비빔밥을 비벼 먹지 않고, 들어간 재료를 각각 맛보아 고유의 풍미를 느끼는 방식으로 즐기기도 한다. 이에 샐러드에 익숙한 미국인들에게 나물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채소 조리방법을

한식의 세계화 겨냥한 맛과 맛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토종 한식 프랜차이즈 비비고는 서울 광화문에 글로벌 허브 매장을 운영하면서 미국, 일본, 중국 3개국에 먼저 출시됐고, 이후 아시아와 유럽 등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해 현재 영국,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홍콩, 대만을 포함한 총 9개국에 진출해 있다. 2015년까지 세계 각지에 1000개점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너희 먹기를 거리가 되리라

(食物)



만 뭐니뭐니 해도 한국인의 입맛엔 역시 고추장에 참깨 소스를 더한 게 제격인 듯.

현지인에 맞춘 新 메뉴 개발
룩은 웨스턴 맛은 코리안

번 시즌에 새롭게 개발된 메뉴를 한번 보자.
우선 그린타코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대표적인 멕시칸 음식 타코를 본따 새롭게 선보인 그린타코는, 살사 소스만이 아닌 초절입한 무쌈 등

기에 고추장 베이스에 마요네즈를 섞은 퓨전 소스가 이곳 단골들의 인기 아이템이다.
흑미 밥에다 해물을 다져 넣고 정성스레 튀겨낸 블랙 라이스 고로케 역시 참 맛있다. 살사 소스에 아르

다. 다분히 한국적인 '닭볶음탕'에 가깝지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투 형식으로 만들어 매콤하면서도 토마토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다. 한 입 털어넣으면 목구멍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인상적이다. 이 또한 룩은 한국적이지만 맛은 미국적인 메뉴라 할 수 있다.

맵지 않으면서도 상큼 칼칼한 골동면도 강추. 고소한 메밀면에 신선한 새싹과 다채로운 나물 그리고 닭가슴살을 곁들여 겨자간장 소스에 살포시 비벼먹으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식사를 마치고도 디저트를 위한 공간이 남아있다면 호떡 위에 달콤하게 올라앉은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을 할 수 있다. 또다른 디저트로 고소한 맛이 그만인 '흑임자 두부 판타코타'도 추천할 만하다.

▷주소 : 225 S. Beverly Dr Beverly Hills CA 90212
▷연락처 : 310-275-0011

개념 웰빙食 다이어터들에게 인기

부촌 비벌리힐스서 '음식 한류' 침범

굳이 비비고의 성공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한 메뉴 전략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온갖 인종이 섞여있는 '거대한 멜팅팟' 비벌리힐스를 찾는 세계인의 입맛에 맞춰 이

한국적인 재료를 가미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맛으로 튜닝했다. 신선한 오징어를 바삭 튀겨낸 칼라마리도 인기 메뉴다. 심플하게 손질한 오징어에 감자전분을 입혀 깔끔하게 튀겨내는 것이 포인트다. 여

골라와 곁들여 먹도록 개발된 이 메뉴는 마늘 장아찌의 알싸한 맛과 고추의 매운 맛이 더해 세련된 맛을 자랑한다.
고추장 베이스에 토마토를 듬뿍 넣어 만든 치킨 스투도 반응이 좋

추천 메뉴

Hot stone Bibimbap



시즐감이 살아있는 한국식 전통 돌솥비빔밥이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브로콜리 등을 나물로 넣어 색다른 맛과 느낌을 준 것이 특징. 3가지 종류의 비빔밥 중 단연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아이템이다.

Fig & Avocado Salad



건강을 중요시하는 캘리포니아인들을 위한 건강 샐러드로 계절과일인 무화과와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가 들어간 샐러드. 건강을 배려한 새콤한 오미자 드레싱으로 한층 더 입맛을 돋궜다.

Buckwheat Noodle



전통 국수인 '골동면'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해 선보인 비비고식 골동면이다. 메밀면에 신선한 새싹과 각종 나물, 그리고 닭가슴살을 곁들여 상큼한 겨자간장 소스에 비벼먹는 현대식 헬시면이다.

Glass Noodle



쌀로 만든 가느다란 버미셀리 누들에 여러가지 야채를 넣고 달달한 간장 소스에 볶아낸 잡채. 굵은 당면에 비해 오래 뒤도 불지 않고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다. 단연 미국인들에게도 핫한 아이템.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Excel Legal Center (엑셀법률센터)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혼인, 이혼, E2 투자
- 민사, 퇴거(Eviction), 파산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소액재판(small court claim)

☎ 213-365-6622 (67+ 사무스베일러앤모터대학원 한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el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밀러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미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효염소

상왕 효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효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효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 효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에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골드핑거 직접재단 직접재봉

양복점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가야 한의원

CA YA Oramed Herb & Acupuncture

- 현대의학으로 치료의 성과가 나지 않을때
- 수술후에 계속 체력이 회복되지 않을때
-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경우
- 내과 질환으로 수술의 권고를 받았을 경우
- 병의 고통을 느끼나 병원에서는 병명이 나오지 않을때

어느곳을 가아할지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 문의하여 주십시오.

Tel. 213-400-1012 612 S. Virgil Ave., #209, LA, CA 90005
Herbforyou@gmail.com

홈 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란드 신한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 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스마트 월드

FUJITA 카멜레온 커버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연통 커버 \$30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연통 커버 \$30

음을 운전 때문에 고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찹쌀,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www.myopenbank.com



이 아이에게
물려 주고 싶은건
나눔의 아름다움입니다.

Min Kim
회장



오픈뱅크 청지기 프로그램

Open Stewardship Foundation

한인사회와 주변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현 프로그램을 활성화 및 확장하기 위해 [Open Stewardship 재단]에서 드리는 지원금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미주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기독교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지원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및 지원금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오픈뱅크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접수기간: 2012년 12월 31일까지 | 발표일자: 2013년 2월 28일

지원금 수혜자는 오픈뱅크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www.myopenbank.com



213.892.1197 | 1000 Wilshire Blvd., # 250, Los Angeles, CA 90017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입니다. 동 재단은 매년 오픈뱅크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픈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종래의 기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2012년도 마지막 재고 폭탄세일!

몇대 남지 않은 2012년도 모델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2012 Equus Ultimate (STK #051811)

UP TO \$14,400 D/C

Lease For 629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Include Military, Comp., College Rebate)

- MSRP 66,650 • MILITARY REBATE 500
- PH HYUDAI D/C 11,000 • COLLEGE REBATE 400
- COMP. REBATE 2,500 • NET PRICE 52,250



2012 Genesis 4.6 (STK #175330)

UP TO \$10,000 D/C

Lease For 409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Include Military, College Rebate)

- MSRP 45,535 • MILITARY REBATE 500
- PH HYUDAI D/C 9,100 • COLLEGE REBATE 400
- NET PRICE 35,535



2012 Veracruz Limited (STK #193315)

UP TO \$8,500 D/C

Lease For 219 + Tax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5,999
(Include Military, Comp., College Rebate)

- MSRP 37,275 • HMFC REBATE 1,000
- PH HYUDAI D/C 4,100 • MILITARY REBATE 500
- COMP. REBATE 1,500 • COLLEGE REBATE 400
- HMA REBATE 1,000 • NET PRICE 28,77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스티브 장
626.513.4006



Sales Manager 저스틴 김
626.513.4580



고객상담 제니 김
626.513.4683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